

낙농진흥회 운영과 사업방향

김연환

낙농진흥회 사무국 부장

1.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지난 30년 간 정부의 의욕적인 낙농진흥정책과 낙농가의 피땀어린 노력 및 유가공업체의 신제품 개발로 원유생산량은 40배, 유제품 소비량은 30배이상 증가하였으며 낙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4만여호를 상회하였고 유가공공장은 50여개에 달하였으나 양적팽창을 위주로 하는 발전과 음용유위주의 유제품 소비구조로 1~2년 마다 수급불균형의 반복과 유제품의 품질개선이 따라주지 않았고 최근 가축배설물에 의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농가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유가공업체는 경영이 악화되어 '98년에 4개 유가공업체의 부도가 발생되었으며 일부 가공조합은 가공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낙농산업을 하나의 나무로 보면 낙농가는 뿌리이고 유가공업체는 몸체이다. 뿌리없는 몸체는 살수 없으며 몸체없는 뿌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는 대립과 협조속에 발전해 왔으나

1995년 유제품의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정부는 건실한 낙농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낙농진흥법을 개정하고 낙농전문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를 '99년 1월 1일 설립하게 되었다.

2. 낙농진흥회는 어떤조직인가?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총회는 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한국유가공협회 등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낙농업계의 대표들과 소비자단체등으로 구성될 것이며 모든 사업은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낙농진흥회에서는 기획, 관리, 구조개선 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집유조합에 위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낙농진흥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림부장관의 지도·감독

을 받게 되어있다.

농림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대하여 원유유통질서, 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및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항을 감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업무의 이행사항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우유수급과 가격안정, 품질향상 및 사업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업무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낙농진흥회에서 할 것이다.

또한 조직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진흥회는 원유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원유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이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집유일원화가 시행되면 원유의 판매가격에 약2원 정도의 진흥회 사업비가 포함될 것이며 사업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으로 정부의 보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업추진방향

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99년부터 농림부에서는 매년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수급예측은 어려운 과제이나 수급계획수립에 원유생산 및 유제품소비에 대한 예측모델을 최근의 여러가지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내년부터는 중장기 수요 예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물론 예측업무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큰차이를 보일수가 있어 처음에는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예측의 정확성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유가공품의 수요예측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더 정확한 수급을 예측을 하려면 낙농가 및 낙농산업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원유의 집유일원화와 검사 공영화

현재 원유집유실태를 보면 도별로 집유주체가 93개소이고 집유비는 집유주체별로 약5배의 차이가 나며 집유량은 1일 5.5~1,400톤 수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원유의 유통질서 하에서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유질의 보존에 한계가 있어 유제품이 수입자유화된 상태에서 품질

진흥회의 우리나라 낙농산업 구조조정 방향은
첫째 양질의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낙농가를 육성키 위하여

낙농가의 환경개선과 경영합리화에 적합한 규모 및 전업, 전문낙농
가로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응용 및 합리적인 경영기법 도입
둘째 낙농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시행과 실천으로 건설한 낙농가,
집유조합 및 유가공업체의 육성

셋째 양질의 유제품 생산공급으로 소비자가 우리 생산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유제품시장의 확대이다.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며 원유의 유통경비 절감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진흥회는 낙농진흥법의 범취지에 따라 도별로 1개소의 집유조합을 지정하여 원유의 집유와 유가공공장까지 배송업무를 담당케 하며 여러개의 조합이 있는 지역은 집유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였다.

앞으로 집유조합은 진흥회의 위탁을 받아 원유의 생산계약 및 진흥회가 마련한 낙농가 경영, 기술지도 프로그램에 맞추어 낙농가 지도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원유의 집유점검사는 집유조합에서 실시할 것이며 유대를 위한 원유의 등급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할 것이다.

원유의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는 낙농산업의 특성상 기본적인 사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시행되므로 이제까지 찬성과 반대의 이견이 있으나 이제는 낙농인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하였으면 한다.

이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

지 않고 원유의 유통질서가 해결되지 않으며 혼란이 계속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낙농가가 순간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유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한계단씩 떨어질 것이다.

다. 계약생산과 계약공급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진흥회는 낙농가와 계약생산을 유가공업체와는 계약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

진흥회는 생산낙농가와 3년 계약을 하고 생산물량은 1년단위로 하며 '99년 계약량은 생산낙농가의 희망생산량으로 계약하고 유가공업체 또한 3년 공급계약을 하고 물량은 1년단위로 조정하며 물량의 배정은 원유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국내산 원유사용량과 배정신청량을 참고하여 정해질 것이다.

낙농가와 원유의 생산계약은 진흥회의 위탁을 받아 집유조합이 행할 것이며 유업체와 원유공급계약은 진흥회가 행할 것이다.

또한 생산계약된 원유에 대해서

는 진흥회가 전량수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원유대는 진흥회가 책임지고 지불할 것이다.

라. 원유생산기반의 확보

1997년말 통계에 의하면 낙농가는 17천농가 수준이고 젖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낙농가는 2,300여 농가며 평균 경산우 두수는 40두로 이 비율은 전체사육두수의 31% 수준이다.

경산우 40두이상을 사육해야 전문적인 낙농경영이 가능하며 젖소의 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 경영의 합리화, 원유의 질 향상 등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경산우 40 ~ 50두 규모의 농가에서 사육되는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낙농산업이 안정되고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

이라 본다.

이를 위하여 진흥회는 전문적인 낙농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과 조직을 육성하여 이를 집유조합과 연계하여 실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을 유지·발전시킬 것이다.

마. 낙농산업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낙농분야에서도 원유생산에서부터 유제품의 소비단계까지 실행되지 않는다면 낙농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진흥회의 우리나라 낙농산업 구조조정 방향은

첫째 양질의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낙농가를 육성키 위하여 낙농가의 환경개선과 경영합리화에 적

합한 규모 및 전업, 전문낙농가로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응용 및 합리적인 경영기법 도입

둘째 낙농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시행과 실천으로 건설한 낙농가, 집유조합 및 유가공업체의 육성

셋째 양질의 유제품 생산공급으로 소비자가 우리 생산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유제품시장의 확대이다.

4. 맺는말

낙농진흥회 시행과 낙농진흥회 설립을 앞두고 우리 모든 낙농인과 관련단체, 기관은 현재 낙농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한마음되어야 할 것이며 다같이 노력한다면 우리 낙농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않은 않을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2-573-7822〉

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IMF한파로 낙농육우농가들이 사료값 폭등과 소값 하락 등 감당하기 힘든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회원의 대변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며 이는 회원가입으로 가능합니다.

협회비 3만원을 조기에 납부하시어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社団法人 韓國酪農肉牛協會